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 청년 취업에 큰 기여



건강박람회 현장실습



도지사배 배드민턴대회 현장실습



▲ 우석대 hi-CES교육사업단장 윤신중 교수 인터뷰

“비전염성 질병 관리 임상운동전문가 도움 필요”

우석대학교 hi-CES 교육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윤신중 박사(스포츠의학과)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형으로 변화하고 인간수명이 크게 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각종 질병 중에는 비만이나 소아당뇨, 자폐기형, 운동상해, 노인 만성질환 등 비전염성 질병이 의외로 많다”면서 “세대를 특정하지 않는 이같은 질병을 적절히 관리, 개선하는 데는 임상운동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박사는 “이런 필요성에 따라 산학관커플링 사업으로 각 세대별 임상운동전문가들이 육성되면 기존의 보편적인 운동지도에서 벗어나 각 질환과 상해에 맞는 맞춤형 운동지도가 가능하고 만성질환자들의 질환개선과 건강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박사는 이어 “과거 임상운동전문가는 자격시험이 까다로워 박사과정을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했고 그만큼 자격증 취득자도 적었다”면서 “하지만 올해부터는 응시자격이 완화돼 스포츠의학을 전공한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윤 박사는 이에따라 “올해 우리 대학은 전북도로 부터 사업비 1억4천만원을 지원받아 임상운동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학관 커플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스포츠의학과가 주관하고 있는 이 사업에는 현재 45명의 재학생과 5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박사는 “학생들이 교과 이외에도 1년동안 방과후 교육, 방학연수, 취업캠프, 인성교육, 현장 및 건강 전문가 초청특강, 학회참석, 현장실습 등을 통해 실력과 인성을 키워가고 있다”면서 “따라서 어느 기업 및 기관에서 어떤 요청이 오더라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의뢰민(취업) 해 달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혜은 기자

비만·운동상해·만성질환자 대상 임상운동전문가 양성 청년실업 및 구인 구직자간 미스매치 해소에도 기대 모아

전라북도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이 시행된지 올해 10년째를 맞으면서 관련 기관 및 기업체 등으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커플링 사업은 청년실업 및 구인 구직자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전라북도와 대학, 기업이 산학관 협력체제를 구축,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해 청년취업 지원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우석대학교는 올해 초 hi-CES 교육사업단을 꾸려 전 국민의 30%에 달하는 체형 이상과 비만, 운동상해, 만성질환자(비전염성 질환자)를 운동을 통해 예방하고 이들의 건강을 운동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임상운동전문가를 적극 양성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임상운동

전문가들이 현장에 배치되어 어린이들의 성장과 노인들의 건강수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은 대사질환자나 심뇌혈관질환자에게 운동을 처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는 단계. hi-CES 교육사업단에서 양성하는 임상운동전문가들은 3학년 때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유소년과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4학년 때는 건강운동관리사 국가자격 취득 후 마지막 단계에서 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임상운동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급년도 사업을 통해서도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6명, 노인 스포츠지도사 13명, 건강운동관리사(1차 시험) 5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hi-CES 교육사업단 소속 학생들은 방학 중에도 각종 실기 연수와 근관절 보호 테크닉을 연마하고 도내 각종 유관기관과의 현장실습을 통해 끊임없이 실기능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올해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는 각각 8명과 19명의 요원을 파견, 현장실습을 통해서 전라북도가 체전 성적 중위권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각 세대별 운동전문가들이 육성되면 기존의 보편적인 운동지도에서 벗어나 각 질환과 상해에 맞는 맞춤형 운동지도가 가능하고 만성질환자들의 질환개선과 건강유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격을 갖춘 임상운동전문가들이 양성되면 도내 의료시설, 노인시설, 유소년시설에 투입되어 관련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공급은 물론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21세기, 살기좋은 Well-ness의 전복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혜은 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